

유아 예술 경험 위한 ‘아하! 작은미술관’ 운영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협력으로 작품 속 동물 친구들 체험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정재영)이 11월부터 유아 예술 경험을 위한 기획 전시‘아하!작은미술관’을 운영한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관장 이계영)과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쓱쓱-쓱쓱- 손끝으로 만나는 장욱진 그림 속 동물 친구들’을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물은 장욱진 작가의 작품 속 동물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프로타주(Frottage, 문지르기 기법) 체험으로 유아들은 다양한 재질의 표면을 탐색하고 그 질감을 종이에 전이시키는 과정을 통해 형태와 감각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림 속 동물 친구들을 새롭게 표현하는 놀이 기반 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체험 전시물은 장욱진 작가의 대표

작 중 ‘닭과 아이(닭)’, ‘동산(개)’, ‘까치(새)’, ‘가족(소)’ 등 총 4점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되어 예술 감상과 창의 표현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하!작은미술관’은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 3~5세 유아 및 토요가족 체험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유아 주도의 감각적 탐색과 창의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예술 활동으로 진행된다.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아이들이 손끝으로 예술을 느끼며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예술자원을 교육현장과 연계해 유아들의 예술 감수성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

안양시가 한국공정마음무역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받으며 공정무역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시는 그동안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내 공정무역 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실천기관(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1년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후, 2023년 재인증을 거쳐 올해 2차 재인증을 받게 됐다.

시는 이를 기념해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본관 로비에서 현판 제막식,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공정무역협의회 관계자와 공정무역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무역을 알리는 ‘안

양시 포트나잇(Fairtrade Fortnight)’ 행사를 개최했다.

포트나잇(Fairtrade Fortnight)은 1997년 영국에서 시작된 공정무역 캠페인으로, 매년 2주간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인식 향상과 윤리적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개최된다.

이일 11시30분부터 시청 별관 로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안양시 공정무역도시 선언을 계기로 자재발굴 생산자와 공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공정한 소비문화가 일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평택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워크숍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8일 양일에 걸쳐,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내 복지 관련 기관·단체·시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협력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평택시 지역 사회보장계획 추진 방향 공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예비 논의 ▲분과별 협력 방안 논의 ▲진화하는 인공지능(AI)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방향성 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통합복지 실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일부 구간에서는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역사·문화 해설을 제공했다. 2차 시범투어는 11월 11~13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 시범투어(뽕투어) 참여자들은 공룡알 화석산지에서 호소한 지질자원을 직접 확인하며 화성의 자연사 가치를 체감했고, 화성당성에서는 웅장한 경관과 더불어 당성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접했다.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에서는 서해의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송민수 기자

경기 동남권 교통혁신 ‘판교~오포 도시철도’ 신속한 추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내 고시 목표 추진 중

고시 이후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신속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의지 표명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번째 방문지로 광주시를 찾아 경기 동남권의 교통 혁신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문화누리홀)에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주민 여러분이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다. 지금 마침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빨리 진행했고, 아마도 계획대로 한다면 다음 달에 국토부 협의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문제 등으로 수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절실함을 김 지사에게 전



하자. 김 지사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얼마나 교통 문제가 심각했으면 청년들 이주하는 문제도 얘기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철도나 교통 인프라 계획 중에서 이것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없다. 해당 시에서 가장 열망하는 걸로 달달버스 콘셉트를 잡는데, 광주시는 판교~오포 도시철도로 잡았다”며 “제가 기재부 장관 출신인 만큼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협의해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등의 표현을 9회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업의 신속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시 오포까지 총연장 9.5km 구간을 지하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9,45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농협경기본부, ‘농심천심 경기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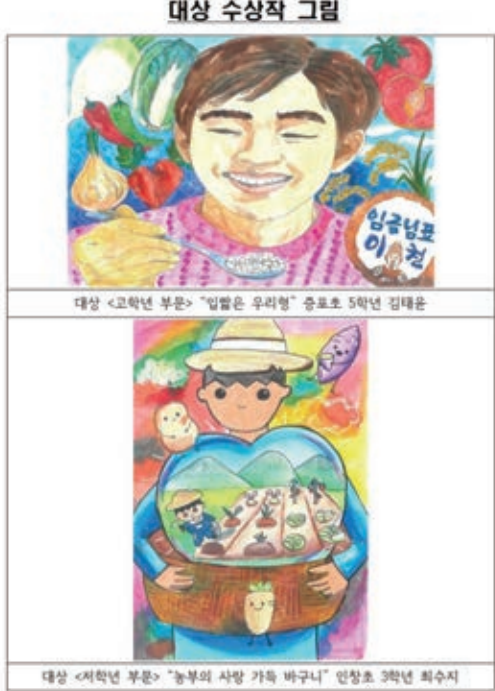
도내 4,800여 명 어린이 참여…상상력으로 농업의 소중함 그려내

농협경기본부(본부장 엄범식)가 지난 9월 29일~10월 24일까지 진행한 ‘농심천심(農心天心)경기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494개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807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다.

제출된 그림은 2차례에 걸친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두 개 부문 총 49명이 수상하였다. 대상 2명과 최우수상 2명은 농협중앙회장상과 농산물 상품권, 우수상 6명, 장려상 20명과 입선 19명은 농협경기본부장상과 부상 등을 수여한다. 입상한 작품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농협경기본부(신청사)에 오는 14일부터 전시될 예정이다.

고학년 부문 대상은 중포초 5학년 김태운 학생의 ‘입짧은 우리 형’이란 그림으로 “농부 아저씨의 정성스럽고 소중한 우리 농산물 덕분에 입 짧은 우리 형이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며, 저학년 부문 대상은 인창초 3학년 최수지 학생으로 “농부의 사랑 가득 바구니”가 수상했다.

엄범식 농협경기본부장은“상상 이상으로 많은 작품과 우수한 작품이 접수되어 어린이들이 우리 농업·농촌에 관심과 사랑이 많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며 “어린이들의 마음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온·오프



라인 작품 전시와 홍보에 힘써 농심천심의 마음을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북정1지구 조성사업 현장점검

12월 일주 앞두고 통학로 동선·기반시설 등 꼼꼼히 확인… 주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안전대책 △기반시설(도로·공원·녹지 등) 추진상황 △입주민 생활불편 해소방안 등을 세밀히 살폈다.

성남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보완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11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입주예정자 간의 소통 자리를 마련해 입주 예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주를 앞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새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이 계획대로 완수되도록 끝까지 현장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구리시, 15일부터 국군 구리

병원 축구장 시범 개방

구리시는 인창동 국군 구리병원 내 축구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 국군 구리병원과 축구장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구리시는 지난 2017년 국군 구리병원과 병원 내에 축구장과 체육관, 풋살장을 조성해 군장병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준공된 국군 구리병원 내 축구장을 일반에 개방하기 위한 후속 협약으로, 구리도시공사가 축구장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관리위탁 협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구리시축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축구장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예약 및 관리는 구리도시공사가 맡는다.

과천시, '갈따구 유충 발견'

관련 정수시설 점검 강화

과천시가 일부 정수시설에서 갈따구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지난 6일 시내 일부 수용가에서 갈따구 유충이 발견된 데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정수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내 수용가 12곳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과천시 맑은물사업소는 유충 발생 이후 정수시설의 역세척 주기를 단축하고 살수장치를 상시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정·배수지 미세어 과시설 제작에 착수하는 등 제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유충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밀 역학조사를 요청해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 ‘2025 트래블쇼’

에서 관광홍보관 운영

파주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코엑스 디(D)홀에서 열린 ‘2025 트래블쇼’에 참가해 파주시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파주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관광기념품을 성공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홍보관은 ▲명소 홍보 공간 ▲관광기념품 홍보 공간 ▲행사 공간 ▲체험 공간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관광홍보관에서는 파주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총 12종의 관광 홍보책자를 배포하며 파주의 대표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소개했다.

홍보관 벽면에는 ‘2025년 파주시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이 파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 ‘새빛만남’

청소년들도 함께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발언권을 주며 “수원시에 바라는 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5명의 학생은 저마다 의견을 냈다. 이의중학교 전교부회장은 “후배들이 여름에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교실마다 미니냉장고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했고, 이의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은 “광교에서 수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빛만남에 참석한 시민들은 청소년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박수로 격려했다.

‘2025 새빛만남- 수원, 마음을 듣다’는 이재준 시장이 수원시 모든 동(44개)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에게 시정 주요 계획과 각종 동의 마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날 광교동 주민들과 만남은 32번째 새빛만남이었다. 2025 새빛만남은 12월 4일까지 이어진다.